

칼럼

정문재 뉴시스부국장 겸미래전략부장



나폴레옹을 쓰러뜨린 세금

전쟁은 문명(文明)의 발전을 이끈다. 인간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고, 조직의 혁신을 모색한다. 시공을 초월한 진리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전쟁은 만물의 아버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제(國費)도 전쟁의 산물이다.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용병을 동원해 영토 팽창 경쟁을 벌였다. 전쟁이 일상화되자 전비(戰費) 부담도 폭증했다. 정상적인 재정 수입으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피렌체 시민들은 국제인 '프레스탄제(prestanze)'를 의무적으로 사들였다. 이는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그저 실질적인 비용을 보충하는 정도였다. 피렌체의 경우 전체 가구의 2/3가 프레스탄제를 구입했다.

나라가 안정돼야 채권 발행도 가능하다. 국력이 약해지면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어려워진다.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국제 투자를 이끌어내

어렵다. 국제 발행을 위해서는 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재정 부담은 눈덩이 불 듯 늘어간다. 그래서 정부는 증세를 고민하게 된다.

영국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 발발과 함께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프랑스가 다른 유럽국가들로 혁명을 수출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그래서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다른 유럽 국가들과 힘을 합쳤다.

영국은 전쟁 승리를 위해 동맹국들과 역할을 분담했다. 영국이 해군력의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신 동맹국들은 육군을 강화하도록 유도했다. 막강한 육군을 거느린 프랑스를 견제하려면 당연히 포석이였다.

전비 조달을 위해 재정기반 확충은 필수였다. 윌리엄 피트(William Pitt) 총리는 다양한 세원 발굴을 위해 머리를 쥐어짰다.

재정 전문가 헨리 비크(Henry Beke)가 때마침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영국의 경제 변화를 꿰뚫어본 탁견이였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에 힘입어

새로운 부자들이 속속 등장했다. 돈줄은 자본가들이 거머쥐고 있었다. 비록 이들을 중심으로 세금을 거둘 것을 제안했다. 바로 소득세였다.

피트 내각은 한시적인 소득세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연 소득 60파운드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고세율 10%의 소득세를 도입했다. 세금 부과를 위해서는 소득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는 곧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피트 총리는 "나폴레옹과의 전쟁이 끝나면 소득세를 폐기할 것"이라며 불만을 무마했다.

영국은 소득세를 재원으로 해군력을 키우는 동시에 동맹국들을 지원했다. 프랑스는 전비 조달 능력에서부터 영국에 뒤지고 말았다. 경제사 전문가들은 소득세를 '나폴레옹을 쓰러뜨린 세금'이라고 표현한다.

영국은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정착시켰다. 세입 확충 수단으로 소득세만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프러시아는 영국보다도 효율적인 소득세 제도를 바탕으로 국력을 키웠다. 프러시아

는 납세자가 직접 자신의 소득을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납세자의 허위 신고는 단호하게 제재했다. 현재 전세계 국가들이 프러시아 소득세제를 활용하고 있다.

전쟁은 최대의 재정 수요다. 하지만 평화로울 때는 다르다. 복지가 재정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특히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치고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는 경우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치매 국가책임제 등 복지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 재정 수요가 큰 쪽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복지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지 확대는 '팁 서비스(tip service)'로 전락하고 만다. 폭넓은 증세가 없으면 복지국가는 신기루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답습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것을 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한정되고, 이런 기조는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신의 임기 동안 잔치를 벌이고 청부서는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얘기가 다름없다.

잘못된 정책은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윌리엄 피트 총리가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 속에서도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社說

과도한 증금속 노출 피해야

과도한 증금속 노출이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19세기 음악 거장 루트비히 판 베토벤이 어느 날 갑자기 청력을 잃게 된 것은 카드뮴이나 납에 의한 중독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실험과 성인에 대한 역학조사 등에서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이 청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역학연구는 아직 없다.

이런 가운데 카드뮴이 청소년의 청력 손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가천대 최윤형 교수 연구팀이 한국 성인과 청소년 6천40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를 통해 납과 카드뮴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 청력 손실 위험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카드뮴은 담배 연기나 대기오염·어패류 등을 통해, 납은 가솔린·페인트·통조림 등을 통해 노

출된다. 연구팀이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 5천187명과 12세 이상 청소년 853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성인의 혈중 납 농도가 2배 증가하면 고음역대 청력손실 위험이 1.3배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고음역대는 진화벨 소리, 새 소리, 비행기 소리 등 3·4·6 kHz(킬로헤르츠) 음역대로, 양쪽 귀 중 어느 한 귀라도 25dB(데시벨) 이하의 고음역대 소리를 듣지 못할 경우 고음역대 청력손실이라 정의한다.

또 성인의 혈중 카드뮴 농도가 2배 증가하면 고음역대 청력 손실 위험이 1.2배 높아지는 등 납과 카드뮴의 위험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카드뮴과 납의 농도가 비교적 낮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계속 노출되면 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청력 손실과 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노출 수준을 낮추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陞	오를	승	陞階納陞
階	섬돌	계	
納	들일	납	▷ 뜻: 문무 백관이 계단을 올라 임금께 납폐하는 절차임.
陞	대궐의섬돌	폐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화재나 사고시 119소방서 즉시신고 생활화해야

오늘날 통신수단의 발달로 휴대 전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화재·인명구조·긴급환자·태풍이나 홍수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사고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사고발생 지역이 119소방서와 원거리인 경우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자세한 현장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고현장에서 먼저 소방대를 출동시킨 후 신고자와 연락을 취하여 현장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19 신고자는 간단하게 화재·사고발생 신고만 하고 수화기를 놓은 경우가 있으며, 사고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

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19 신고요령은 다음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00아파트 부근 대형마트 부근 관공서 옆, 00초등학교 앞 소방식당이나 백련로 현대백화점 옆 희망가구점 부근에서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발생, 인명피해 사함, 사고의 종류, 사고 규모, 현재의 상황, 신고자의 성명과 전화번호(장난전화 예방 및 출동 중 현장상황 파악)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신고 후에 가능하면 멀리서 잘 볼 수 있는 큰길이나 큰 건물이나 신고한 장소에서 나와서 소방차나 구급차와 소방대를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고현장에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신고자가 현장의 지휘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고의 대·소 또는 종류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자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인정이 때마르고 생업에 종사하며 가는 길이 바쁘더라도 우리 이웃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비싸고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119 신고 정신도 좋지만 2차, 3차 사고방지와 사고수습을 위한 신고자의 역할의 중

요성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각종 사고의 자세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즉시 119 신고를 한 후에 화재발생·사고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소화기나 소화용수나 건물 안에 설치된 소화전으로 초기 화재진압과 질서정연하게 피난유도를 실시하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플러그를 뽑아주시고, 노후전선을 교체하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주의하고, 가스 중간밸브 반드시 잠그며, 가스를 사용하시기 전에 항상 통풍·환기를 10분 이상 시켜주며, 사골곰탕이나 요리를 하기 위하여 가스레인지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합니다.

최원평 / 무안소방서 민원반장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김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중심·생명중심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선진 교통공동체를 만듭니다!

-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

